

오늘과 내일
전문기술자의

인공피혁 생산기술개발

박 세 응 씨

〈(주)코오롱경산공장 파장〉



◇ 박세응파장이 인공피혁생산제조공정의 한단계인 부직포생산제조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술제품인 인공피혁은 각 생산회사마다 ▲원사 ▲부직포제조방식 ▲폴리우레탄 종류 및 합침방법 ▲해성분 용출방식 ▲전체공정순서 등에 따라 각기 특징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코오롱은 특수방사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가는 0.001테니아 해도형 초극세사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91년에 초극세사를 활용한 고품위의 인공피혁공장을 자사 경산공장에 준공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피혁은 신발용과 장갑 및 잡화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나머지 15% 정도가 의류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점차 그 이용분야가 확대 추세에 있어 앞으로 한정된 천연피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박파장은 품질면에서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덧붙인다.

전남 완도출신인 그는 의사인 부친의 뒤를 이어 의대를 지원했으나 낙방한 후 일본의 기리후(桐生)고공 방직과를 나온 외조부 최사열(작고·1946년 군정청의 초대섬유과장 역

요즘같이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는 기술혁신만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값싼 노동력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주역을 담당해 왔던 섬유산업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주)코오롱이 5백여억원을 들여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첨단인공피혁 『CHAMUDE』는 섬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첨단기술제품. 이 회사가 이러한 첨단소재개발에 성공한 배후는 54명으로 구성된 인공피혁생산기술팀의 숨은 노력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팀의 팀장인 박세응파장(38세)은 지난 82년 7월 코오롱에 입사한 후 83년 인공피혁의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11년간 줄곧 인공피혁개발 및 생산업무에 종사해온 핵심멤버이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정해진 퇴근시간도 없이 또 어떤때는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묵묵히 동참해온 동료 및 부하직원들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회사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그는 한국인의 대표적 근성인 끈기가 바로

최첨단 인공피혁개발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인공피혁은 직물위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인조피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첨단소재로 구조 및 외관이 천연피혁과 유사하나 물성 및 내구성은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세탁이나 햇빛에 대한 내구성이 천연피혁에 비해 월등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50년대말 미국의 듀퐁사에 의해 첫개발된 인공피혁은 섬유관련기술이 총합된 복잡한 제조공정등으로 인해 70년대초 일본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이래 도레이사와 구라레이사등 몇몇 기업만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108종에 달하는 원·부원료가 투입되고 12단계의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게 되는 첨단

임)의 영향(?)을 받아 섬유공학에 관심을 갖고 경희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원과정까지 마쳤다.

지난 82년 중매로 결혼한 부인 김성희(36세)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는 그의 소망은 10년후쯤엔 (주)코오롱 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에 자신이 쌓아온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단지 기술뿐이므로 기술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에게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마는 근성있는 기술자』라는 이회사 기술연구소 이승조소장의 평가가 실감나는 전문기술자 박세응파장. 기술한국의 미래를 걸어 봄직도 하다. (인)

54명의 기술팀... 10년 연구결실 108종의 원료투입 12단계 거쳐